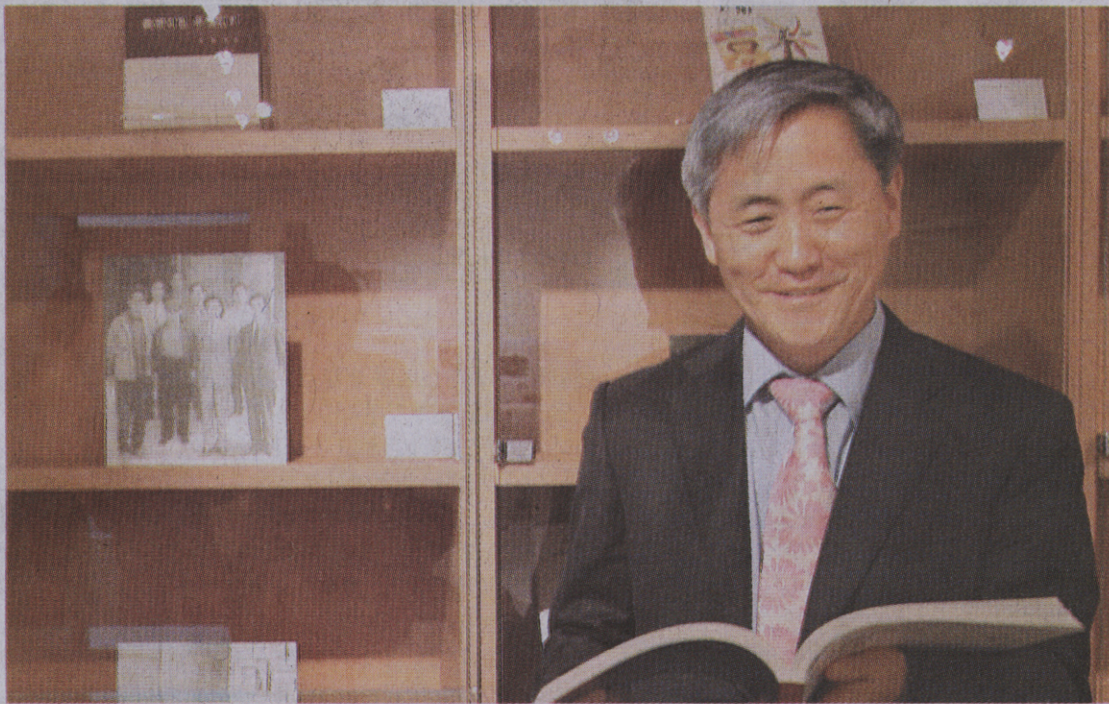


얼마 전 한국 근·현대 미술인 4909명을 담은 '대한민국 미술인명록'이 나와 미술계의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. 대한민국 미술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을 만든 주인공은 정부도, 화랑도, 교수도 아닌 한 편집자이다. 그는 바로 '걸어다니는 미술사전'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장(55)이다.



김달진 씨가 자신의 연구소에서 편찬한 '미술인명록'을 들고 웃고 있다.

<이승환 기자>

미술계선 그를 '재야의 고수'라 부른다

고졸 출신으로 정규 미술교육이라곤 받아본 적도 없고, 국립현대미술관 일용직 출신인 그가 어떻게 '미술사전'이 됐을까? 김달진의 '미술 집착'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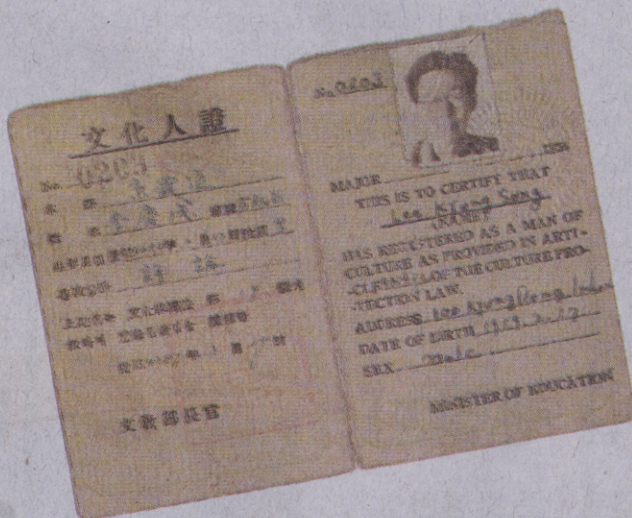
김 소장은 "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우표 겸상표 담뱃갑 수집 등에 재미를 붙였다. 어느 날 청계천 헌책방을 찾았다가 미술에 빠지게 됐다"고 회상했다. 그때 그는 중고 여성잡지에서 본 '이달의 명화'에 매료됐고, 그후 각종 여성잡지에 실린 그림을 빠짐없이 모으기 시작했다.

"잡지에 게재된 르누아르 피카소 등 명화가 너무 좋았습니다. 주인한테 10원 주면 그림 2~3장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. 취미로 하다 보니 어느새 직업이 됐죠."

청계천에서 발품 팔던 소년은 어느덧 미술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. 1979년 미술잡지 '전시계' 기자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을 거치면서 미술 지식을 쌓아갔다.

"국립현대미술관 시절 일당 4500원의 임시직이었지만 미술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. 근무가 없는 주말에 인사동을 돌며 전시도록 등 미술 관련 자료를 모으는 게 큰 낙이었죠."

때문에 당시 인사동에선 '김달진 모르면 간첩'이라는 말이 돌 정



소장자료 중 하나인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(1919~2009년)의 문화인증. 발급 연도가 단기(4287년·서기 1954년)로 돼 있으며 아호(방지거), 전공 분야(평론) 등이 적혀 있다.

를 비롯해 비평글, 작품 이미지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. 독일인 에카르트가 쓴 조선미술사(1929), 1954년 당시 문교부장관이 예술가에게 발급하던 문화인증, 신세계화랑 전시브로셔(1971) 등 희귀 자료들도 있다.

조선총독부 조선미술전람회 도록(1926), 한국 최초 원색 도판 화집인 오지호 김주경 2인화집(1938) 그리고 1117명 화가 명단을 수록한 오세창의 근역서화집(權域書畫徵, 1928) 등도 박물관 한 칸을 장식하고 있다. 이러한 것들은 겹쳐놓는 물론이거니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소중한 자료들이다.

당연히 박물관 운영에 적지 않은 돈이 들 터. "2002년부터 만들고 있는 '서울아트가이드'로 근근이 박물관을 운영하고 먹고 살 정도지요." '서울아트가이드'는 미술 관련 정보잡지다.

그는 요즘도 매일 아침 15종의 신문을 꼼꼼히 쟁긴다. 미술 관련 기사는 직접 가위로 잘라 스크랩한다.

"(미술 관련 자료 수집은) 누군가 해야 할 일입니다. 다만 그 행운을 제가 누릴 뿐입니다."

'재야의 미술고수' 김달진 소장의 '미술 집착'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.

정승환 기자

단행본 1만권 등 40년간 모은 자료만 18 t

매일 15개 신문 보며 미술기사 스크랩

도였다.

스스로 '회심의 역작'이라 여기는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(이하 김달진박물관)을 연 것은 2008년. "그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. 어떤 미술대보다도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."

청와대 앞동네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3층짜리 김달진박물관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방대한 미술자료가 쌓여 있다. 미술기사·

전시도록·미술관 표 등 자료를 다 합치면 18 t 분량이나 된다고 했다. 미술단행본만 1만권이 넘는 다. 이외 정기간행물은 331종 6400권, 미술학회지는 54종 850권에 달한다. 몇 년 전에는 자료 무게 때문에 바닥이 내려앉아 수리한 적도 있다.

수많은 자료 중에서 그가 애착을 갖는 자료는 작가별 자료. 예컨대 김환기 파일을 들춰보면 신문기사